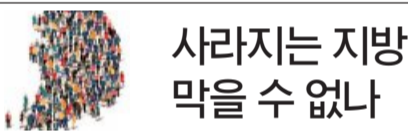




겨울이 선물한 풍경 '無等雪山'

매서운 바람을 동반한 추위가 찾아든 16일 오후, 무등산 정상에 하얀 눈으로 뒤덮여 마치 한 폭의 설경 산수화를 연상케 한다. 17일 화순 최저 영하 7도를 비웃, 광주·전남지역은 이번 주 내내 아침 기온이 영하의 강추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주택·취업 지원에 농장 빌려줘도 청년들 수도권 유출 '백약이 무효'



사라지는 지방
막을 수 없나

<3> 떠나가는 청년들

광주와 전남지역의 청년인구 감소 폭이 매년 커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청년 정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지역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 <관련 기사 3편> 이 가운데 전남은 전체 인구 가운데 청년인구 비율이 21.5%로 떨어지면서 전남 인구의 고령화를 앞당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 청년 인구 유출은 소비·생산·외부 효과 등 지역 경제 역량과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사실상 지방소멸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 각 지자체들은 지역 청년들을 잡기 위해 인간힘을 써왔다. 청년들의 금융·주거 지원, 맞춤형 취업 지원, 공동체 활성화, 성공적 귀농·어촌 이주 지원,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의 청년 정책이 쏟아졌지만, 여전히 청년인구 감소폭이 커지면서 정책에 대한 실효성 여부에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광주, 청년정책 1852억 투입
청년인구 28.6%...해마다 줄어
전남, 청년 비율 21% '전국 최저'
경제력 약화에 고령화도 앞당겨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의 청년인구는 2020년 41만400여명에서, 2021년 40만3996명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39만2484명으로 줄면서 40만명의 벽이 깨졌다. 전체 인구에서 청년인구(18~39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2020년 광주시의 전체 인구 145만 명에서 청년인구는 28.6%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27.4%로 줄었다. 광주시는 지난해 84건의 청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비를 포함해 185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지 못했고 타지에서 생활하는 지역 청년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도 하지 못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통계청이 예측한 장래 인구 추이를 보면 2040년 광주시의 청년인구는 25만 3452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 것이다. 이는 현재 광주시의 전체 인구 중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

율이 27.4%인 반면 2040년에는 18.9%로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전남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은 광주에 비해 더욱 심각하다. 전남의 청년인구는 2017년 해도 46만 6684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45만8623명(2018년) → 44만4355명(2019년) → 42만4813명(2020년) → 40만6809명(2021년)으로 떨어지더니 지난해 39만 1309명으로 줄었다. 전남 인구에서 24%를 차지했던 청년인구 비율은 이제 21% 수준에 불과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남도와 전남 22개 시·군이 농장, 양식장을 빌려주고 수역 원 자리 선박도 내주면서 청년들의 호감을 사려고 인간힘을 쓰고 있지만 변화의 꺾새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121개 인구 정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입한 예산은 국비 등을 합해 모두 1조2883억원이 투입됐다. 이 같은 '젊은 피' 수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얼굴 보기가 갈수록 힘들어진 마을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고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라는 옛 속담의 대칭 개념으로 '지방소멸, 청년 소멸'이라는 단어가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대로라면 광주·전남지역은 젊은 활기와 생동감을 찾아 볼 수 없는 '인구 고령화' 지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알립니다 호남의 리더 당신을 모십니다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 선수가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활쏘기 시범을 보이고 있다.



김난도 교수 유현준 교수 김정은 교수 서은국 교수 심용환 소장

고수들의 명강연 ... 지역 최고 인적 네트워크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11기 원우 모집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광주·전남·전북 지역 각계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3월부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11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수준 높은 강의와 함께 각종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강연과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와 해결책을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창간 71주년이라는 호남 최고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게 수강생 여러분이 지역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교육과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인원 : 00명
- 지원 자격 : 기업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 교육 기간 : 3월 ~ 11월
- 강의 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8시30분 (호텔 뷔페 식사 제공)
- 원서 교부 및 접수 : 2월 17일까지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수강료 : 550만원 (부가세 포함)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39

光州日報社

- 광주시립미술관장 선임 싸고 문화계 '술렁' ▶2면
- 굿모닝 예향-남도 오디세이 미로 '해남' ▶18-19면
- 김시우, 하와이 신혼여행 중 소니오피 우승 ▶22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이보다 쉬울 수 없다. 가장 손쉽게 만나는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 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온라인샵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결제 시스템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중대
- 국내 수입처 최다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

